

#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 '닭 문화관' 개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닭을 주제로 한 작고 예쁜 박물관이 등장했다. 이화

여대에서 34년간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김초강(67)씨가 만든 '서울 닭 문화관'이다. 20년 넘게 모은 세계의 닭 미술·공예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공간이다. 문연지넉달, 처음세달간 '닭 표정 엿보기'라는 개관특별전을 한 데 이어 첫 테마 전시로 한국의 '꼭두닭과 민화전'을 열고 있다.

아담한 2층 건물 안은 온통 닭 세상. 보이는 테마다 닭이 있다. 서양 앤틱 가구로 꾸민 1층은 상설 전시장 겸 카페. 찻잔, 설탕그릇, 방석과 식탁 매트, 벽과 가구 장식, 심지어 화장실의 휴지곽과 쓰레기통까지 전부 닭 공예품이다. 뽀내는 닭, 점잖은 닭, 귀여운 닭, 씩씩한 닭 등 표정도 참 다양하다. 하얀 청바지 입고 지팡이 짚고 양산 쓰고 산보하는 녀석도 있다.

테마전의 꼭두닭과 민화는 2층에 있다. 꼭두

닭은 나무로 깎아서 상여 가마에 올려놓던 장식물. 망자의 저승길이 편안하고 극락왕생하라고 비는 마음을 담은 조각이다. 전시에 나온 꼭두닭은 100년도 더 된 것들이지만, 소박하면서도 과감한 형태와 색채 감각은 현대의 미감에 뒤집어 없다. 닭 민화는 우리 민화 뿐 아니라 중국, 일본 것도 걸려 있다.

김초강 관장은 "서울 닭 문화관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인 닭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한다. 그래서 이름도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관으로 지었다.

그의 수집품은 3,000점이 넘는다. 그 가운데 가장 많고 가장 아끼는 것이 우리나라 꼭두닭으로 1,000점쯤 된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로 수학여행을 갔더니, 상여 가마를 쪼갠 장작으로 불을 때서 밥을 지어주더라.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 불쏘시개가 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꼭두닭을 모으기 시작했고, 점차 세계의 닭으로 관심을 넓혔다고 한다. 그렇게 꾸준히 모은 것들을 남들과 함께 보고 공부하고 싶어서 문화관을 차렸다.

전시장이 좁아서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



기 때문에 1년에 네 차례 주제별 전시를 통해 소개한다. 꼭두닭과 민화전에 이어 유리닭과 형짚닭(7월), 나무닭과 닭우표(10월), 닭 생활 문화전과 어린이를 위한 전시(내년 1월)를 준비하고 있다.

- 한국일보

## 세계

### 바이오연료 열풍으로 세계 중앙銀 물가관리 부담

바이오 연료 열풍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이 세계적으로 통화팽창 압력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전전공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수년간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면서 새로운 환경에너지원인 옥수수, 종려유, 사탕수수 등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인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예외는 아니다.

제일재경일보의 4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는 2006년 식품가격이 13%나 올랐다. 2005년 3%내외의 가격상승에 비교하면 놀라운 폭으로 뒀 것이다.

중국은 2005년 곡물가격이 2% 상승했으나 지난해는 6%로 뛰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식품가격 상승속도가 통화팽창 속도를 앞지르면서 중앙은행의 물가관리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쇠고기, 계란, 우유 등에서부터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지금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사야 한다.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옥수수 가격 상승이 관련제품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국닭고기협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 의회 증언에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지금보다 훨씬 비싼 닭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옥수수 등에 대한 바이오 연료수요가 그렇게 엄청난 상황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 등에서 경작면적을 확대하고 기술접목이 이뤄질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곡물가격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공업화로 경작지가 축소됐고 수자원 부족으로 작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 연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공장용지 전용이 늘면서 경작지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11.5 규획기간'(2006~2010년)에 옥수수 수급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2~3년 사이에 중국이 옥수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옥수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옥수수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 상하이=연합뉴스

## 미국

### 육류·가금류 지방 찌꺼기로 바이오디젤 생산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식용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 지방을 가공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4월 16일 발표됐다.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와 미국 식품기업 타이슨 푸드는 이렇게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이 유황 함유 등에서 미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최대 1억7천500만갤런을 생산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타이슨 푸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북미 공장들 일부에 동물지방 처리 설비를 구축할 자금을 올 여름 마련할 계획이며, 코노코필립스도 일부 정유소에 해당 처리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생산은 연내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들 회사는 밝혔다.

- 휴스턴 AP=연합뉴스

### ◆ FDA, 인체에 유효한 AI 백신 최종 승인

FDA가 지난 4월 17일, H5N1형에 유용한 백신을 최종 승인했다. 이것은 미국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백신이고, H5N1형이 변형되어 증식되기 전에 제한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언론 발표 자료에서 언급했다.

이 백신은 미 중앙정부에서 연방창고에 비축을 한 후 관계자들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 H5N1형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64명 중 우

선적으로 18명에 한해 접종될 예정이다.

28일 간격으로 2번 주사를 맞게 되면 AI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이 될 것이라고 FDA는 언급했다.

이 백신은 프랑스의 Sanofi-Aventis 라는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상업용으로는 판매되지 않을 예정이다.

- 프로메드메일, 로이터

### ◆ 닭과 타이라노자우루스는 같은 '혈족'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등의 연구팀은 6,899만 년 전의 공룡 타이라노자우루스(Tyrannosaurus)의 뼈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으로 타이라노자우루스가 닭의 '혈족'에 해당하는 증거를 얻었다. 연구논문은 4월 13일자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에 게재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조류와 공룡이 진화상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가설은 불려왔으나 분자레벨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닭이 공룡에서 진화되었다는 설을 보강하는 재료가 된다고 보고 있다.

- AS

## 중국

### 옥수수 공급부족 우려로 정부가 증산 촉진

중국 농림부는 지난 4월 9일 옥수수의 증산 가속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명산 종식업관리사장은 "세계 제2위의 옥

수수 생산국 및 주요소비국으로서 중국은 국제 거래량 감소 상황을 접하고 국내생산에 입각해 자원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굴하는 형태로 옥수수 증산을 가속시켜 유효공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옥수수의 소비량은 근년 목축업의 발전, 특히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가 형태로 급증했다. 수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공급과다에서 수급균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상황의 추이를 보면 금후에도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가공이 급증해 국내의 옥수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진 사장은 “중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의 증가 잠재력은 한계가 있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선진국에 아직 못 미쳐 증산의 잠재능력은 크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에 의한 검증은 거듭한 결과, 옥수수의 증산을 가속시키기 위한 당면한 주요수단은 우량품종의 보급, 재배밀도의 합리적 증가를 골자로 하는 종합적 기술보급이 된다.

- CN

#### ◆ 위생부, AI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 형적 없어

중국 위생부 왕용덕 부부장은 AI의 유행에 대해 설명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될 수 있는 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AI의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 형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AI의 사람에의 감염은 지금까지 대규모로 나

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당장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병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예를 들면 요령성 환자의 예에서는 검사로부터 최종적 진단까지 1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원인불명의 폐렴에 걸려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까이서 접촉한 모든 사람을 색출해 감염의 유무를 조사했다.

동시에 바이러스를 추출해 유전자를 조사해 조류형 바이러스인지 혹은 사람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인지를 보았다. 현재까지 우리들이 추출한 10수 주는 모두 조류형이었고 인체형으로의 변형은 없었다. 그래서 면역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의 감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CN

#### ◆ AI 샘플 공유 준비 중

중국이 조류인플루엔자 사람 샘플을 공유하는데 동의했다고 WHO가 밝혔다.

중국은 1년전 H5N1형 사람 샘플을 WHO 실험실과 공유했으나 이후에 5건의 사례가 더 발생했고, WHO는 새 샘플을 공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WHO 대표자인 Henk Bekedam은 중국에서 작년에 AI에 의한 희생자들로부터 수거한 바이러스 샘플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고 H5N1형의 돌연변이형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 로이터

#### ◆ AI 대처 위한 기금 더 필요

WHO가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위생상황 향상을 위한 자금 및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을 최다 인구 국가이고, 가금 사육수 또한 세계에서 제일 많아 위험이 특히 높다고 전했다.

- 로이터

## 일본

### 인도네시아에 AI 방역 비용 제공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AI 퇴치 및 공중 및 가금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화 15억5천 만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일본 정책 및 인력자원개발자금(Japan Polic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PHRD), 일본의 아시아개발은행 특별 자금, 아시아 지역 프로그램과 세계은행에서 지원했다.

미화 15억5천만불 중 천백만불은 인도네시아 정부로 이미 전달되어졌다.

- antara.news

## 멕시코

### 2007년 식육 수요 계속 확대 예상

미국농무성 해외농업국(USDA/FAS)은 최근 멕시코의 식육수요가 2007년에도 계속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해외에서의 식육 수입량이 증대

한다는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특히 도시 중고소득층의 식육 소비 신장이 예상되는 한편 계육의 생산은 전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도 사료나 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생산코스트의 상승에 더해 수입계육과의 경쟁 격화로 당초 계획보다 하향 수정되어 있다.

멕시코의 브로일러 생산비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율은 55~60%이나 사료 중 60%는 수수와 옥수수이고, 나머지 40%는 수입품(주로 미국산)이다.

그리고 멕시코의 계육생산은 수직통합형 대규모 양계가를 이루어 대기업 3사의 생산 점유율이 52%에 달해 공정경쟁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중견 계육생산자는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생산자의 대부분은 계약 생산자로 되어 있다.

계육의 소비에 있어서는 생산량의 하향 수정과 계육가격의 상승에 또띠아(tortilla) 등의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구매력 저하도 있어 당초 예측보다 하향 수정됐다.

그러나 다른 식육보다 싸다는 이점이 있어 2006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육수입에 있어서는 전년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수입계육의 대부분이 소시지 등의 가공원료 수요증가가 배경으로 되어 있다. 주 계육 수입선은 미국이지만 근년 칠레의 냉동계육의 수입도 증가경향에 있다.

게다가 2007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쿼터의 냉동 지육의 관세할당량은 약

〈표〉 계육 생산

(단위 : 천톤)

연도	생산	수입	수출	소비
2005	2498	378	0	2876
2006	2576	430	0	3006
2007	2641	454	0	3095
전년증감	2.5%	5.6%	-	3.0%

10.4만톤이나 과거 2년간은 할당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쿼터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AW

## 캐나다

### 조류폐사는 조류콜레라와는 무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6~8일 사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조류의 폐사는 기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프로메드메일은 전했다.

캐나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 13일 폐사체를 조사한 결과 AI나 AVIAN CHOLERA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그 어떤 연관이 되는 흔적이나 중독증세가 없음)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4월 6일 이후 약 200마리에 달하는 폐사조류를 수거해 처리했고 추후에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 같이 특정질병이 아닌 기아에 의한 폐사의 경우는 특별히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힘들다.

물가에 서식하는 조류, 특히 물고기를 섭취하는 새들의 경우는 그들의 식량이 되는 물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 기아로 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병든 새들과의 접촉을 금해야 하며 그들의 애완동물도 새들로부터 접촉을 금해야 한다.

- 프로메드메일

## 영국

### 최종 AI 역학조사보고서 발표

DEFRA는 지난 2월 Suffolk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 발생에 대한 최종 역학 보고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EU위원회 및 헝가리 당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 실시한 국립역사조사팀의 조사사항이 보고되어 있다.

동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Holton, Suffolk에 유입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참조.

[http://www.defra.gov.uk/animalh/diseases/notifiable/disease/ai/pdf/epid\\_findings\\_050407.pdf](http://www.defra.gov.uk/animalh/diseases/notifiable/disease/ai/pdf/epid_findings_050407.pdf)

- Medical News

## 말레이시아

### 밀수 닭 경고

말레이시아는 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밀수되는 냉동닭고기에 대해 단속을 강

화했다고 밝혔다.

세관에서는 싱가포르 국경을 이웃하는 말레이시아 남부 Johor주에 들어오는 트럭으로부터 28톤의 냉동 닭고기를 압수해 파괴했다.

Johor주 관세청 부청장은 AI 발생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 promedmail.org

## 가나

### 첫 번째 AI 발생

지난 2003년부터 확산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72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바이러스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검출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5월 2일 확인했다.


소피아 투완 바리마 가나 WHO 대변인은 기니만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테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H5N1이라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나 보건부의 공공보건처장 조지 아모파 박사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H5N1이 검출된 적은 있으나 가나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H5N1 바이러스가 첫 검출된 이래 카메룬, 지부티, 이집트, 니제르, 아이보리 코스트, 수단, 부르키나파소 등지에서 H5N1 검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가나는 아시아와 나이지리아, 아이보리 코스트 등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는 등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으나 결국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에서의 AI 확산은 만성적 기근과 불량한 보건 상태로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심각할 수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나이지리아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H5N1바이러스로 사망했으며 지부티와 이집트에서도 AI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 뉴시스

## 알아둡시다!

### 천식에 좋은 운동

흉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수평운동이 좋다. 운동에 의한 천식발작은 기관지의 수분과 열의 방출에 의한 것이므로 수영장처럼 따뜻하고 포화 수증기가 많은 곳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

### 천식에 위험한 운동

구조상 기도 폐쇄가 있기 때문에 흥광에 부담이 가해지면 발작이 올 수 있다.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하는 수직 운동, 예를 들어 역기 혹은 무거운 짐을 드는 건 좋지 않다. 너무 찬 공기를 마시며 달리거나 너무 격렬한 운동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